

“국경 뛰어넘는 ‘友情’ 나뉘요!”

2007 포천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 8.10~8.14 까지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를 지향하는 포천시가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 청소년들의 이해 증진, 그리고 국제 교류도시와의 우호교류 확대를 위해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5일 동안 2007 포천 국제청소년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한다.

2005년부터 세 번째 열리는 포천 국제청소년 문화체험행사는 중국과 태국, 몰도바, 벨로루시 등 4개국 50명의 청소년들과 각국 인솔자 및 통역요원 등 40명, 그리고

포천지역 중학생 50명이 참여해 5일 동안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경을 뛰어넘는 우정을 나눈다.

이들은 탈 만들기, 탈춤 배우기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자국문화 경연대회와 각국 노래 배우기를 통해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서로 소개하며 나라별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게 된다.

또 퍼즐맞추기와 공동벽화그리기 등 각종 팀워크놀이를 통해 창의성과 단결력을 함양한다.

이 밖에 남산골 한옥마을 견학, 용산국립중앙박물관 견학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유물, 전통가옥을 이해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글로벌 교육환경 확충”의 일환으로 포천시가 주최하고 포천시 청소년상담소가 주관하는 이번 문화체험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계 각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직접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 인력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를 지향하는 포천시가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 청소년들의 이해 증진, 그리고 국제 교류도시와의 우호교류 확대를 위해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5일 동안 2007 포천 국제청소년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문화체험행사)

“벼 생육상태 저조한 상태”

2007년 식량작물 중간평가회 개최

포천시는 7월2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박운국 포천시시장, 이강림 포천시의회장 및 최자용 농촌지도자 포천시연합회장, 조문화 포천시쌀연구회 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식량작물 중간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이응규 소장은 5월 충분한 강우로 모내기는 적기에 마쳤으나, 이양 후 일시 저온으로 초기 활착이 지연되었으며 6월 하순이후 예년보다 이른 장마의 영향으로 잦은 강우와 일조량이 부족해 생육상황이

약간 저조한 상태라 설명했다.

현재까지의 벼 생육상황을 비롯해 병해충발생 및 방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벼농사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 이에 따른 개선대책 등에 대한 토의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범단지 중 영평면 고품질 쌀 유통 시범단지와 참수면 잡곡 프로젝트 사업단지 등을 순회하며 경쟁력 있는 우리농산물 발굴과 재배기술 보급, 체계적인 품질관리기술을 엮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는 7월2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박운국 포천시시장,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 및 최자용 농촌지도자 포천시연합회장, 조문화 포천시쌀연구회 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식량작물 중간평가회를 개최했다.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⑬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서익석

대진대학교 통일연구원장



첫째, 분단으로 인해 개인이 겪게 되는 갖가지 고통과 불편을 방지하고 제거함으로써 오늘의 삶을 좀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둘째, 통일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민족적 정서이다. 이제 남북은 이념과 체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과 가치관도 달라졌다. 이에 더해 남북한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의 질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단군 이래 한반도를 타전으로 하여 오랫동안 하나의 민족 국가를 형성하여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이루어 살아왔기 때문에, 남북이 하나의 체제, 하나의 정부를 이루어 하나의 민족 국가로 다시 통일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셋째, 통일은 민족의 비원이자, 분단으로 인해 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겼다. 고향에 갈 수 없고, 부모 형제도 만날 수 없는

현실에서 민족적 비원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남북이 통일되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통일은 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이다.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민족적 비극을 겪었다. 그리고 아직도 남북을 합쳐 약 170만 명의 군대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전쟁 재발의 위험성은 항상 불안의 대상이 되므로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우리 민족이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다섯째, 통일은 민족 전체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이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민족의 발전과 번영에 투입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잘사는 민족 사회를 이룩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남북통일이 된다면 우리의 경제력은 장기적으로 보아 세계 8위권 또는 5위

권에 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여섯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탈냉전, 화해 협력의 시대로 가고 있으나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그늘에 빠져 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될 때, 전후 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냉전 체제는 비로소 완전히 청산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세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통일은 우리나라가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을 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념과 국경을 넘어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자유화, 복지화, 세계화로 나아가고 있고 이는 분명하다. 그리고 남북통일이 된다면 우리의 경제력은 장기적으로 보아 세계 8위권 또는 5위

이동목욕차량 간호인력 채용

포천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위해



포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목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목욕 서비스의 보다 원활한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간호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내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목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목욕 서비스의 보다 원활한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전문간호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포천시 거주자로 55세 이하이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임상경력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포천시는 이동목욕차량의 전문 간호인력 채용으로 수혜대상자에게 보다 만족도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사회복지과(☎538-2269) 및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cs21.net) 참고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단동, 여름방학 맞아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선단동주민자치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정사정 등으로 인해 특별히 오갈 때가 없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하여 여름방학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포천시 선단동주민자치센터는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가정사정 등으로 인해 특별히 오갈 때가 없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하여 각종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여름방학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3시간씩 학습교실 및 문화교실이 편성되어 있고, 금요일에는 견학과 체험위주로 운영된 본 여름방학 특화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히 견학이나 캠프를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주변의 어린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여름방학 선물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8월 23일에 소감문쓰기와 발표하기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수료하게 된다.

선단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장경섭)는 21세기를 이끌어 갈 우리의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기 위해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지난 7월에 주민자치위원회 협의의 안전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 참여대상 청소년들을 모집한 결과, 관내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선단사랑의 집과 선단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54명의 학생이 신청하여 지난달 7월 31일에 개강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꿈과 미래를 진정 재발의 위험성은 항상 불안의 대상이 되므로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우리 민족이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집 근처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너무 고맙고 아주 재미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좋은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어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휩쓸어

대진대 제품환경디자인과 김창덕 홍영기 학생

대진대학교 제품환경디자인과 전공 김창덕 학생과 홍영기 학생이 ‘범용 화장실’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DEA(금상), IF(1st Prize), 레드닷(Red Dot)을 모두 석권하는 자력을 과시했다.

‘범용 화장실’은 기존 화장실이 표준적인 성인만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음을 착안하여, 장애인, 노령자, 어린이 등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된 가변형 화장실 디자인이다.

아이디어와 피나는 노력으로 놀라운 성과를 얻은 대진대 김창덕 학생과 홍영기 학생은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즐거움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진대학교 제품환경디자인과 전공 김창덕 학생과 홍영기 학생이 ‘범용 화장실’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DEA(금상), IF(1st Prize), 레드닷(Red Dot)을 모두 석권했다.

목회단상

과잉(過剩)의 화(禍)

어느 대학생이 방학을 이용하여 농촌을 돕고 농촌 체험을 하기 위하여 시골을 찾아 마을 리장님을 뵈고 봉사할 곳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야기를 들은 리장은 난색을 표하며서 적당한 곳이 없다고 하더니 그러면 한번 가보자고 마을 건너편 양계장(養鷄場)으로 학생을 안내했다.

이 줄어드는 달걀의 수를 보고서는 그 대학생에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주인은 대학생에게 이렇게 일러 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양계장 주인은 마침 잘 됐다며 며칠 여가를 다녀와야 했는데 없는 동안 양계장 일을 좀 달라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양계장 관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 주었다. 사료 주는 법, 계분을 치는 요령, 물을 주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

“학생은 나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았군요. 닭들은 모이를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쪼들어가서 못하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난 다음 이 청년은 주인이 없는 동안 잘했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닭들에게 주인 주라는 사료량 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주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주인이 있을 때보다 계란 생산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더 자주 주었다. 그는 닭들이 영양을 보충하면 달걀을 더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제서야 대학생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했다. 우리 속담에도 “지나치면 못 미칠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판단대로 잘못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할 것이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신다. 잠언서3장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인은 예정대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주인은 형편없

문의) 031-532-2489

포천시 정보화마을 농촌체험관광 풍성

고무마के기와 옥수수따기 등 프로그램 운영

올 여름 포천시 정보화마을(포천버섯마을, 자동산촌마을, 솫골마을)에서는 농촌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내면 버섯마을은 버섯종균장 견학을 시작으로 감자캐기, 고무마케기, 옥수수따기 등의 농촌체험활동과 대나무 물총만들기, 떡메치기, 새끼꼬기, 버섯집 만들기 등의 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범으로 짚을 재배하는 관이면 솫골마을에서는 우렁이 잡기, 미꾸라지 잡기, 허수아비만들기, 감자캐기, 옥수수따기, 피살이 등 시골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포천시 정보화마을 체험관광은 연중실시하며 20명이상 단체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고 예약 접수는 해당마을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및 전화예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신북면 자동산촌마을에서는 당일코스와 1박2일코스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동산촌마을의 자랑인 천년수 견학 및 피톤치드가 뛰어난 잣나무 숲 산책하기, 물고기와 다슬미 잡기 등의 물놀이 체험, 손수건 꽃물들이기, 잣껍질공예, 떡메치기, 자동산촌만들기를 수놓을 자물꽃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포천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http://mushroom.invl.org(김영주 011-778-6625), 자동산촌마을 홈페이지 http://jdong.invl.org(양연실 031-535-5399), 솫골마을 http://sot.invl.org(서성진 032-532-779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농사정보 ⑤ 8월 중순에 실시할 농작업

1. 벼농사
가. 볍은 관리
• 이삭이 곧 썩어갈 때 이삭이 패고 있거나 어린 이삭이 자라고 있는 중생중, 중만생중 때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이삭패 후 30~35일까지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갈라대기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도록 한다.
나. 병해충 방제
• 이삭도열병은 한 번 걸리게 되면 바로 수량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방위주로 방제해야 하는데, 포장에 벼이삭이 2~3개 보일 때 1차 방제를 하고 1차 방제 후 5~7일 경 다시 한번 방제를 하도록 한다.
•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있집 무늬마름병 발생이 우려되거나 흑명나방의 피해 등이 확산, 피해가 우려되는 논은 이삭도열병 방제시 적용약제를 섞어 뿌려 동시방제로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2. 채소
가. 고추
• 고온 다습한 시기에는 고추 탄저병 발생이 많아지고 담배나방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예방 위주로 방제한다.

• 풍수해에 대비하여 배수로 정비하고 지주를 보강 해주고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고추 염면시비를 하여 생육을 촉진시키는 등 후기관리를 잘 하여 수량을 높이도록 한다.
• 볍은 고추는 제때 수확하여 다음에 달리는 고추의 자람을 좋게 해 주고, 적온에서 건조하여 품질을 높이도록 한다.
나. 무·배추
• 가을 무·배추 파종에 알맞은 시기는 중부 지방이 8월 중순, 남부 지방이 8월 하순경이므로 제때에 파종토록 준비한다.
• 배추 육묘상은 땅사 터널을 설치하여 바이러스병을 예방토록 한다.
•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배수를 정비, 습해를 방지 않도록 하고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요소 0.2%액(요소40g/물1말)을 뿌려 생육을 촉진시켜준다.



이한설 포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전과장